

산업자원부

발전 사업자

태양광 발전 보조금 갈등 일단락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놓고 대립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발전사업자들과 면담 자리에서 고시 발표 이후 3개월 안에 지자체 발전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REC가중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REC가중치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대형 발전업체에 판매할 때 발전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인증단위의 가산 기준이다. 일종의 보조금 같은 개념이다. 1REC는 1MWh를 생산했을 때 인정되는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생산한 전력에 해당 REC가중치를 곱해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12일 기준 1REC의 가격은 11만1979원이다. 1REC의 가격은 매주

고시 공표 후 3개월 내 지자체서 발전허가증 받을 시 기준치 인정 업계 "근본적 해결 아냐" 반발도

화·목요일에 변동된다.

REC가중치는 산업부에서 결정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전력 REC가중치는 발전용량에 따라 0.7~1.2의 가중치를 부여해왔다.

산업부는 5월 18일 향후 적용될 REC가중치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전력 가중치는 ▲100kW미만 태양광 1.2 ▲100kW이상 3000kW이하 1.0 ▲3000kW초과 0.7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야부지 태양광 REC가중치 기준을 추가해 발전 용량과 상관없이 0.7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유예기간을 설정해 고시 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태양광 생산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야의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서지원 과장은 "최초 REC가중치 도입 당시 임야·논·밭·목장·과수원 부지 태양광 발전에 REC가중치로 0.7을 부여했지만 이 당시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땅값이 다소 오르지 않았지만 사업비가 당시보다 적게 드는 지금 시점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야사용량이 너무 늘어나 이를 과거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업체는 즉각 반발했다. 현 제도로도 무분별한 임야 개발이 방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전기사업허가와 지자체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한다. 임야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역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뉴시스

받는다. 이 때 표고(標高)·경사도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산지 전용(轉用) 허가 여부를 평가한다.

유예기간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반발을 듣고 있다. 업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간간히 허가 소요 기간에 1년 이상이 걸려 유예기간 6개월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산업부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자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이전 REC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타협안으로 산자부와 발전사업자들의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보는 업계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비상대책위원회 임시모임'의 김길용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근무일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항목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도 빠듯하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 대신 사실상 REC가중치가 동결된 대규모 전력 공급사업자들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근본적인 타협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길기자 cgr@metroseoul.co.kr

LGU+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라인 세미나 글로벌벤처 본격 육성... '포스트 팁스' 150억 지원

LG유플러스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알리기에 나선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고객 니즈에 따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IT 인프라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하고, 이외에는 사용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에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델이 LG유플러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오는 20일 '클라우드에 IDC의 장점을 더하다. 클라우드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대로 알아보기'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세미나는 웹 사이트 상에서 발표자가 동영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시청하는 참가자와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19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클라우드 동향정보와 IT전문 컨설턴트의 방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중기부 팁스 후속 성장사업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대표적인 기술창업플랫폼인 팁스(TIPS)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의 후속 성장을 돕기 위한 '포스트팁스(Post-TIPS)'가 신설됐다.

팁스란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민간이 운영사 역할을 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을 연계해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새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투자하는 '2018년 Post-TIPS 프로그램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트팁스는 팁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마케팅 등의 자금을 2년에 걸쳐 기

<Post-TIPS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기간	2년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1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물	20% 이하	10% 이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업당 최대 5억원씩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 상품 양산 등을 돕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이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20억원의 후속 투자, 10억원 매출, 50만 달러 수출, 20인 이상 고용 등의 성과를 거둔 기업을 말한다.

올해 예산을 통해 3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한다. 다만 선발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사업 수행 이후 최종평가에서 불성실 실패로 인정될 경우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선발과정에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과 전체 고용인력 중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절반 이상인 팁스 졸업기업은 우대한다.

빠른 창업기업은 2년간의 사업수행을 거쳐 최종 졸업 여부를 심사받는다. 성공 판정은 5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등 민간에서 통용되는 성공벤처 수준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 최대 15억원 이상) 및 기술보증기금의 '포스트 팁스 융자프로그램'(융자 최대 50억원)과 연계해 경영 및 시설자금 확보도 가능하도록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정말 성공가능한 창업기업을 엄선하는데 이 사업의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예산 소진을 위해 선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링크웨어 고화질·주차녹화 'FHD 블랙박스'

링크웨어는 선명한 영상화질과 주차녹화기능을 탑재한 블랙박스 '아이나비 Z300'(사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나비 Z300'은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처리 기술력을 가진 '암바렐라 A12' CPU를 탑재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영상을 제공한다. 전방FHD, 후방HD 영상화질로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 중 녹화 기능이 강화됐으며 특히 야간주차 시 나이트 비전이 적용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장시간 주차녹화를 위해 '타임랩스' 기능도 적용했다. 1초에 2프레임씩 정해진 시간을 특정 간격으로 저속 촬영하는 이 기술은 기존 1초당 15~30프레임 영상과 비교해 충격·모션 녹화를 장시간 수행할 수 있다. 또 '포맷 프리2.0' 기능을 더해 메모리 포맷이 필요없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장시간 주차에 대비해 차량 방전이 되지 않는 배터리 방전 방지기능도 적용됐

다. 주차 중 차량 배터리를 실시간 체크해 설정된 기준 전압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배터리 보호를 위해 블랙박스 전원이 자동 차단돼 차량 방전 및 전압에 대한 최적화된 관리가 가능하다.

이밖에 전원인가 시 3초 만에 작동하는 '패스트 부트 솔루션', 녹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3.5인치 LCD', 별도의 장 GPS를 통해 과속단속지점 등을 알려주는 '안전운행도우미' 외에도 상시·이벤트(충격), 수동 녹화 등 다양한 녹화모드를 지원한다.

가격은 ▲16GB 24만9000원 ▲32GB 27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자이클 베스트셀러 2종 폴란드 진출 성공

자이클은 '자이클 S'(사진) 등 베스트셀러 2종을 내세워 폴란드 진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수출 규모는 약 3만 달러다.



이번에 폴란드 시장에 처음 진출한 제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자이클 S'와 '자이클 웰빙'이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자이클 S와 자이클 웰빙은 '상부 발열 및 하부 복사열'을 양방향으로 가열해 냄새, 연기, 기름 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자이클 웰빙'은 조리 팬이 다양해 그릴부터 오븐, 토스터, 생선구이기로 활용될 수 있어 폴란드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한샘 호텔침대 신제품 '유로 501 코튼그레이'

한샘은 베스트셀러인 '유로 501' 호텔침대의 신규색상 신제품 '유로 501 코튼그레이'(사진)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호텔스타일 침대 '유로 501'은 매달 1000세트 이상 판매돼 오프라인 침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유로 501 코튼그레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레이 색상을 적용해 모던스타일 침실 공간을 연출한다. 미드브라운(어두운 나무색)과 내추럴 화이트(밝은 나무색) 색상으로 내추럴 스타일 인테리어에 한정했던 것과 차별화했다.

이 제품은 서랍장, 화장대, 벽판넬 등 가구 단품을 패키지로 구성해 마치 호텔 스타일의 맞춤 가구를 주문한 듯 통일감 있는 공간을 만든다. 또, 침대와 가구 단품을 조합해 '1자형', '1자형', '대면형', '패밀리형', '트윈형' 등 5가지 배치

가 가능하다. 화장대의 깊이와 벽판넬의 가로길이를 기존모델보다 약 10cm 줄여 공간활용도 높였다.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간접조명은 호텔 같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콘센트가 있어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도 가능하다.

가격은 킹·퀸 79만8000원, 슈퍼싱글 64만8000원, 멀티패널(조명·콘센트) 25만9000원, 데스크화장대 52만7000원이다. /김승호 기자